

앙리 르페브르: 일상생활의 철학

로브 윌즈, 조명래
캐나다 칼튼대 교수, 단국대 교수

1. 생애와 이론적 맥락

앙리 르페브르는 누구인가? 1950년대와 1960년대 프랑스의 지식사에서 그는 영원한 국외자이면서 동시에 프랑스의 좌파 인간주의 전통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 프랑스 공산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축출되었던 비정통 논객인 르페브르는 리오타르, 알튀세, 푸코 등 프랑스 좌파 사상가들의 저작물이 영어권 이론가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훨씬 전, 1950년대와 1960년대 프랑스 이론가들 중에서 자신의 저서가 가장 많이 영어로 번역된 사람이었다. 1939년에 출판된 『변증법적 유물론(Dialectical Materialism)』(Lefebvre, 1967)은 12개 국어로 번역되었고, 12차례 이상 출판되었다. 이 덕택에 그는 전세계적으로 2세대에 걸쳐 지식인들이 추종했던 ‘변증법의 아버지’가 되었다. 1980년대까지 르페브르는 도시에 관한 문화비판 혹은 사회과학이론에서 ‘공간의 도래(spatial turn)’에 관한 논의를 이끌었던 미국의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이나 지리학자들의 우상이었다.

앙리 르페브르는 맑스주의 실존주의 철학자였고(Lefebvre, 1946 참조), 도시 및 지역생활에 관한 사회학자였으며, 국가이론가였고, 자본의 국제적

흐름과 사회공간에 관한 이론가였다. 1901년 프랑스 남부에서 태어나 1991년에 고도(古都) 나바랭(Navarrenx)에 있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오트 피레네(Haut Pyrenees)에서 삶을 마감했다. 생애동안 그는 프랑스의 일상생활이 근대화되고, 경제가 산업화되며, 도시가 교외화되는 다이내믹한 변화를 다채롭게 체험했으며, 또한 프랑스 소농들이 향유하던 전통적인 농촌적 삶이 급속히 파괴되는 현상을 안타깝게 지켜보아야 했다(Ross, 1996). 르페브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들을 연대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Briec란 프랑스 서부 해안지역과 파리에서 유년시절의 교육을 받았다. 그 후 그는 1차 대전시 점령지였던 파리에서 살면서 먹을 것과 땀감의 부족으로부터, 또 전후 프랑스 대중 사이에 만연했던 질병으로부터, 큰 고통을 겪었던 시절을 보냈다. 1920년대 초반은 프랑스 대중들이 산업화의 양식으로 재편되던 일터로부터, 또한 관료적 양상으로 재조직되던 시민사회로부터 소외를 겪기 시작하던 때였다. 이런 상황이 르페브르로 하여금 소외 문제에 천착토록 했고, 또한 맑스와 헤겔의 철학과 사회비판 이론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이는 나아가 그를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토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2차 대전 동안 르페브르의 경력에는 커다란 공백이 발생하였다. 그의 저서와 원고는 2차 대전 동안 비키(Vicky) 정권에 의해 소각되었으며, 종전 후에도 공산주의관련 저술로 인해 정권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지적 중심부로부터 벗어난 상황에서 그는 프랑스 농촌의 변화에 관한 학위논문을 가까스로 마쳤다. 하지만 학위논문이 *La Vallée de Campan*(1963)으로 발간되면서 그는 농촌사회연구의 창시자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파리의 지식인 세계로부터 계속 국외자였던 그는 1950년 중반에 마침내 스트라스버그(Strasbourg)에서 대학 교편을 정식으로 얻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정치적 아방가르드로서 실천을 본격화하게 되었고, 또한 1960년대 전개된 학생운동 세대에게 앞 세대의 비판정신을 전수해줄 수 있었다. 그가 파리로 돌아온 것은 낭파르(Nanterre) 근교의 한 신흥 대학에서 교수

직을 얻으면서부터이며, 그곳에서 그는 1968년 학생들이 소르본(Sorbonne)과 레프트 뱅크(Left Bank)를 점령했던 소요사태의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이었다. 낭따르는 그가 근대 도시생활의 소외문제를 비판할 수 있었던 환경을 제공해주었다. 그에게 있어 소외는 소비주의의 신비화, 그리고 문화유산 및 관광의 산업화에 의해 파리가 신비화됨으로써 드러나지 않고 은폐된 뒷자였다. 도시에 관한 그의 이러한 비판적 입장은 도시, 자연, 지역의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구성물을 파헤쳐 보는 바탕이 되었다. 국제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그는 현대 학문의 과도한 전문화와 그에 따른 도시쟁점들이 학문적으로 세분화하는 현상, 이를테면 계획학, 지리학, 조사방법론, 건축학, 사회학, 심리학 등으로 나뉘는 것에 대해 커다란 회의론을 제기하였다. 1970년대 초반부터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는 오늘날 ‘지구화’로 일컬어지는 이론을 최초로 정식화하기도 하였다.

르페브르의 영향은 이렇듯 광범위하지만 때론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숨길 수 없는 것은 좌파의 지적 담론세계에서 그가 독특하게 창안한 개념들이 등장하게 된 점이다. 물론 전적으로 그의 것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르페브르는 일련의 논의와 탐구에 큰 영향을 끼침으로써 그의 주장과 관점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일상생활’, ‘근대성’, ‘신비화’, ‘공간의 사회적 생산’, ‘인간주의 맑스주의’, ‘심지어 좌파와 인간주의 시각으로 제출된 소외에 관한 개념’들을 논의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런 개념들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것들이다. 하지만 일상적 근대생활의 맥락에서 규정되는 사회적 삶과 인간행태를 이해하기 위해 이런 개념들에 대해 각별한 중요성을 부여했던 것은 르페브르의 독창적인 이론적 기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사회이론과 그의 기여

우리는 르페브르가 중요한 이론가가 된 일련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

았다. 그가 내세운 인간주의의 핵심은 일상생활의 ‘소외 조건’을 비판하는데 있었다. 그는 1930년대 후반 노버트 구터만(Nobert Guterman)과 함께 이를 발전시키면서 그 결과를 마침내 1947년 『일상생활의 비판(*Critique of Every Life*)』으로 출판하였다(1991a, 그리고 1968b 참조). 이는 세 권으로 구성된 연작 첫번째에 해당한다(1991a; 1981a). 르페브르는 ‘일상성(Everydayness)’ 혹은 ‘진부함(banality)’을 근대성의 한 측면인 정신의 황폐화로 해석하는 맑스적 전망을 따랐다. 이러한 해석은 루카치와는 같았지만 하이데거와는 달랐다. 하이데거는 일상성 혹은 진부함을 형이상학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간주했던 사람이었다. 반면 르페브르는 맑스적 분석을 확장하여 새로운 형태의 소외를 발견하였다. 즉 그는 자본주의가 착취적인 생산관계로 조직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여러 형태의 소외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국면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탈각시키는 가운데 ‘환영적인 상품’의 형태를 사회적으로 유포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소비는 소외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근대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소외의 상태를 의식치 못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고 보면서 르페브르와 구터만은 이 현상을 ‘의식의 신비화’란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그들이 공동 집필하였던 실제의 책제목(*La Conscience mystifiée*, 1936)이기도 하였다. 이런 관심의 연장에서 이들은 소외에 관한 맑스의 청년시절 연구물이나 『독일 이데올로기와 포에르바하에 관한 테제』(1934 참조) 등을 대대적으로 번역·출판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연구와 번역물들은 특히 발터 벤야인(Walter Benjamin)이 시도했던 문화에 관한 맑스 분석에 심대한 영향을 남겼다. 르페브르의 일상성에 관한 개념은 루카치(Lukacs)로부터 차용한 것이지만, 루카치 자신은 소외에 관한 르페브르의 논의를 접할 수 없어 ‘물화(reification, 物化)’란 독자적인 개념을 창안하였다. 즉 루카치의 물화 개념은 르페브르와 구터만(Guterman)의 ‘신비화에 관한 이론’에 대한 인식적 연관을 가지지 않은 채 만들어졌던 것이다. 르페브르의 이 이론은 마치 맑스와 엥겔스가 ‘계급의 허위의식’에 관한 존재를 설정하는 것과 유사하였다. 하지만 역설

적인 것은 르페브르가 소외를 근대생활 전반을 비판하는 핵심개념으로 확대한 것이 맑스와 엥겔스가 언급하는 다양한 유형의 소외(estrangement)이나 탈소유화(dispossession)란 현상을 과도히 축소해 독해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이다. 즉 맑스와 엥겔스가 언급한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프랑스어의 ‘소외’란 개념으로 대체되어, 마치 사회심리적 소외와 동의어로 되어 버렸다. 사회심리적 개념과 달리, 맑스와 엥겔스가 설정했던 소외의 개념은 자본주의적 상황에서 전개되는 잉여가치나 이윤의 강제적 착취에 대한 문제의식, 즉 구터만과 르페브르의 번역에서 놓쳐 버린 자본주의하에서 관찰되는 동태적인 ‘박탈(taking away)’이란 의미가 가미되어 있다.

일상생활의 ‘신비화’, 이를테면 교외 통근자들이 무료하고 무기력한 반복적 생활로부터 겪는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르페브르는 적극적인 주체적 성취를 위한 전략으로 폭로(revelation), 감정적 명확화(emotional clarity), 자기출현(self-presence)의 ‘계기(moments)’를 포착하고 거기에 따른 실천을 제안하고 있다. 계기란 개념은 르페브르의 이론을 통해 ‘출현(presence)에 관한 이론’과 해방적 실천에 관한 토대로서 줄곧 등장하고 있다. 폭로(revelation)나 환각적인(deja-vu) 센세이션의 경험, 특히 사랑과 몰입된 투쟁(committed struggles)들은 계기들의 예들이다. 그래서 정의상, 계기는 탈소외(dis-alienation)의 실례가 된다. 계기는 지속적이지 않고 이완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소비자본주의에 의해 쉽사리 전유(혹은 착취)되거나 상품화될 수 없으며, 또한 기호화될 수 없다고 르페브르는 주장한다. 계기들은 어디에서든 어느 때이든 예측불가능하게 경험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소외된 상태를 벗어나는 ‘탈출구(escape hatches)’로 간주된다. 후에 공간이론가들은 르페브르를 계기의 무시간성(timelessness)과 즉시성(instantaneity)을 바탕으로 ‘확실성(authenticity)에 관한 시간이론(temporal theory)’을 발전시킨, 그래서 존재의 확실성을 공간적으로 이해하는 데 소홀했음을 냉소적으로 지적하였다. 계기는 실제 르페브르의 후기연구에서 서로 다른 사회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중심 잣대로 활용되었다(Harvey, 1991 참조).

헤겔이나 맑스의 연구를 접하기 전까지 르페브르의 연구는 ‘모험(adventure)’, 즉시성, 자기표현을 강조하는 낭만적 인간주의를 발전시킨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독일의 어느 전기작가(biographer)는 그를 ‘낭만적 혁명가’로 불렀다(Meyer, 1973; Lefebvre et al., 1958b). 1920년대 중반 파리에서 학생이자 활동가로서 생활하는 동안, 르페브르는 지드(Gide)와 느슨히 연계되어 있었고, 또한 브레톤(Breton; 르페브르를 헤겔과 맑스에 연결시켜 주었던 사람의 하나)과 같은 초현실주의자나 짜라(Tzara)와 같은 다다이주의자(Dadaist)들의 영향을 받았던 한 철학 그룹에 속해 있었다. 실천을 선호하기 위해 전형적인 실존주의 입장으로 형이상학적 해결을 거부하는 이 그룹은 사르트르와 그의 유파에 대해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Lefebvre, 1925; Short, 1966; 1979; Trebitsche, 1987 참조).

청년 맑스에 대한 연구(이는 구터만이 대개 번역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와는 별도로, 르페브르와 구터만은 헤겔에 관한 ‘입문서(1938)’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그 출간 시점은 코제브(Kojeve)가 헤겔주의를 인류학적으로 해석하는 강의를 하면서 이름을 날리던 때와 엇비슷하여 시기적으로는 아주 적절하였다. 양차대전 사이, 르페브르는 니체(Nietzsche, 1939a)를 반파시스트적(anti-fascist) 시각으로 독해하고 국가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와 민족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작업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변증법적 유물론’(1967)에 관한 맑스주의적 최우선 관심으로 인해 르페브르의 명성은 국제적인 맑스 이론가로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물론 당시 실존주의적 관점으로 일상생활에 대해 썼던 원고들이 프랑스 공산당의 내부검열을 통해 기각되거나 파손되기도 하였지만 말이다.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르페브르는 레지스탕트운동에 관여하면서 1944~45년 사이에 한때 거의 굶어죽을 직전까지 갔지만, 일상생활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쓴 덕분에 이를 출판할 정도가 되었다.

당시 세계 각국의 언론매체들은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언론에 의해 부추겨지기도 하고 또한 언론이 만든 유명세로 인해, 1940년대 내내 르페브르와 사르트르 사이에는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은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화해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Being and Nothingness*)』(1958)에 관한 르페브르의 공격은 사르트르의 영향을 두려워했던 프랑스 공산당에 의해 부추겨졌다(Lefebvre, 1950b). 하지만 사르트르가 누리는 사회적 지위를 르페브르가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르페브르의 변증법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르트르가 깨달았을 때, 정작 르페브르 자신은 프랑스 공산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마침내 축출되고 마는 비운을 맞았다(Lefebvre, 1958b; Poster, 1975; Lefebvre, 1975b).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아마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르페브르의 비판이 일상생활 영역이나 가정과 사회 전반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부터 도시생활에 관한 전면적인 분석으로 옮겨간 점이다(Trebitsch, 1991). 도시생활에 관한 비판의 작업은 1960년대 초반 ‘국제상황주의자(Situationniste International=SI)와의 합동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독서그룹들이 파리의 썸문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합동연구를 기반으로 르페브르는 『썸문의 선언(*La Proclamation de la Commune*)』(1965b)을 출판하였다. 썸문은 파리의 중요한 장소들(sites)을 상징적으로 점유하는 공간실천의 양식이었으며, 특히 파리 도심노동자들의 고양된 직접민주주의의 한 양태를 공간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르페브르는 인식하였다(Lefebvre, 1969). 따라서 르페브르에 있어서 썸문은 일종의 확장된 페스티벌의 한 형태였다. 즉 르페브르는 썸문을 사회적 통제의 경계를 뛰어넘어 일종의 ‘혁명적인 페스티벌’(Ross, 1988)로 발전할 수 있는 변혁적 실천양식으로 간주하였다.

르페브르는 후에 바흐틴(Bakhtin)의 연구까지도 분석하였다. 바흐틴에 대한 르페브르의 접근은 독특하였다. ‘리비도 경제’란 리요타르의 개념(Kleinspehn, 1975), ‘생산력으로서 욕망’에 관한 들레즈나 가타리의 개념과 유사하게, 르페브르는 주로 ‘놀이(play)’의 혁명적인 잠재력에 주목하였던 것이다(Lefebvre and Regulier, 1978a; Lefebvre, 1988 참조). 르페브르

는 코라코우스키(Kolakowski)와 함께 『진화 혹은 혁명』(1974)을 공동으로 집필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후에 가서 혁명의 사회학에 관한 소로킨의 연구와 극명한 대조가 되었다. 놀이의 혁명적 잠재력에 관한 르페브르의 독특한 생각은 후에 낭파르에서 그가 가르쳤던 세미나 그룹 학생들에 의해 실제 실천에 옮겨졌다. 이들이 1968년 5월 소르본 대학과 파리의 많은 지역을 점거한 놀이의 혁명적 실천을 이행한 것이었다. 모든 사람은 ‘도시에 대해 권리(a right to the city)’(1968a)를 갖는다는 것이 르페브르의 생각이다. 다시 말해 르페브르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탁월한 터전(site)이자 르페브르의 표현으로 ‘사회적 중심성(social centrality)’으로 간주되는 도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권리를 갖는다고 하면서 68년 학생소요사태와 같은 공간실천론을 주창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본주의 하에서 변동하는 사회적 관계나 경제요인들이 도시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 및 참여의 질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양자간 상호작용(즉, 자본주의적 사회경제 요인과 도시공간에서의 주체적 접근과 참여간의 관계)은 단순히 도시의 스펙터클 경관에 관한 것이나 소비주체들의 소비행위(shopping)에 관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되고, 근본적으로 개인이 사회집단들과 결연적 관계를 맺으면서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자기실현의 사회적 양식’이란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르페브르는 주장하였다.

도시에 관한 르페브르의 성격규정은 도시이론가들에 의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해 왔다. 르페브르가 ‘도시적(the urban)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질문한 적이 있다. 도시적인 것은 인구현상, 지리적 크기, 또한 건물의 집합체에 관한 현상이 아니며, 또한 도시는 생산의 결절지, 운송지, 중심지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도시적이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뭔가이며, 그래서 도시에 관한 정의는 이 모든 측면에 관한 기본속성을 탐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르페브르는 현상학적 기반으로부터 도시적인 것을 헤겔적인 형태(Hegelian form)로 이해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그를 단순히 현상주의자로 비취지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사회공간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도시적인 것은 ‘구체적인 추상(concrete abstraction)’이다. 즉, “도시적인 것은 특정한 실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것이며, 또한 도시적인 것을 거부하거나 승복하는 행위의 한 부분이 된다는 점에서도 구체적인 것이다… (하지만) 도시적인 것은 추상적인 것이기도 하다. 즉, 명확하면서 측정가능한 기하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적인 것은 추상적인 것이며, 또한 사회적 실존에 개입하면서 새로운 관계의 전체 시리즈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추상적인 것이다…”(Lefebvre, 1968f: 119[1939b]). 결국 도시적인 것은 자본주의의 수많은 요소와 국면들이 공간상에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중심성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여행하는 사람이나 수송되는 재화와 같이 일시적으로 특정장소의 일부가 되는 것이 있기도 하다. 사실 ‘도시적임(city-ness)’은 재화, 정보,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집약적으로 상징한다. 어떤 도시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 이러한 기능을 더 많이 행사한다면, 그러한 도시를 우리는 ‘대도시(great cities)’적인 것으로 인지한다.

도시투쟁문제와 1968년 5월혁명에 관한 경험을 명시적으로 다룬 1 단계 연구에 이어 나온 것이 곧 『공간의 생산』(1991c, 첫판은 1974년 출판)이다. 이 책은 르페브르의 도시연구에서 1972년경부터 시작된 두번째 단계를 여는 초석과 같은 것이다(Lefebvre, 1996; Kofman and Lebas, 1996 참조).¹⁾ 두번째 단계에서 르페브르는 사회공간 그 자체를 주로 다루었고 또한 ‘행성적(planetary)’ 혹은 ‘지구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공간의 생산』에서 주장되고 또한 후에 *De l'Etat*(Vol. 4, 1978b)에서 다시 언급되었듯이, 르페브르는 공간분석의 중심을 공간에 대한(on) 형태론적인 질서나 구조를 논하는 것에서(전형적으로, 영토에 관한 사회학 교과서나 사회생태학에서 발견되는 사회공간론적 논의) 지리적 공간, 장소적 경관, 그리고 토

1) 이 단계는 1972년 뉴욕의 근대미술관이 후원한 ‘탈산업사회의 제도들’에 관한 한 콜로키움에서 행한 발표를 시발점으로 한다. 뉴욕이란 장소성은 르페브르에게 각별히 중요하였다. 실제 르페브르(1980: 234)는 1930년대 말 처음 뉴욕을 방문했을 때 받은 많은 영감을 여러 군데서 언급한 바 있다.

지소유관계가 함축하고 있는 문화적·역사적인 의미를 다루는 것으로 옮겨 놓았다.

그래서 사회공간에 대해 추상이론을 논의하는 대신, 공간의 의미를 둘러싼 주체들간의 치열한 논쟁을 분석하거나 영토를 가로지르는 사회적 관계의 문화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르페브르는 스스로의 연구를 집중시켰다. 이를 통해 르페브르가 하고자 했던 것은 철학, 지리학 혹은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배적인 공간담론과 나란히, 그리고 공간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일상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지리적 공간에 관한 생동적인 체험(lived experiences)이나 그 의미의 이해를 탐구하는 것을 독자적인 지식영역으로 설정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공간의 생산』에서 많은 부분은 공간에 관한 급진적 현상학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할애되었으며, 이는 ‘공간에 대해 개인이나 커뮤니티의 권리’가 부정(혹은 거부)되는 것을 비판하는 인간주의적 접근의 토대로 설정되었다.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지리적 공간은 모두 토지의 필지(lots)로 공간화(spatialized)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는 늘 누구에 의해 소유되어 있으며, 그런 만큼 공간의 사유화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의 중추적인 문화를 구성하는 자산(property) 관계를 파악하는 핵심 부문이 된다.

공간에 관한 역사적인 개념은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분석된다. 르페브르는 이 세 측면을 상이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상생활이나 상식적인 감으로 인지되는 일상적인 공간을 ‘지각공간(perceived space)’이라 하였다. 지각공간에는 대중적인 행위와 전망이 섞여 있으며, 이는 지도제작자, 도시계획가, 부동산투자자와 같은 공간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그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공간의 전문가나 이론가들이 설정하는 공간은 이념과 개념들로 구성되어 재현된 ‘개념공간(conceived space)’에 해당한다. 반면 사람다운 삶이 구현되는 공간으로 구성되고 체험되며, 그를 통해 전인격적이고 실존적인 삶의 조건이 실현되는 공간을 ‘생동공간(lived space)’이라 한다. 이 생동공간은 사람들의 상상 혹은 예술과 문학을 통해 살아 있고, 또한 접근되는 공간이다. 이 세번째

공간은 대중적으로 감지되는 ‘지각공간’이나 콧대 높은 전문가나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규정하는 ‘개념공간’ 모두를 뛰어 넘으면서 동시에 양자간에 균형을 설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공간적 영역에서 관찰되는 생동적 공간화는 삶의 복잡한 ‘재약호화’(re-coded)와 ‘탈약호화(de-coded)’가 시도되고, 지배적인 질서가 완곡히 비판되며, 심미적 어법으로 상징적인 저항이 표현되고, 권력화된 사회사상들이 완곡히 비판된다. 르페브르는 실제 다다(Dada)나 초현실주의자들의 작품, 특히 Rene Magritte의 작품을 대안적인 공간화에 관한 예술·문학 비판·환타지(fantasy)의 실례로 자주 인용하곤 하였다. 대안적 공간 이해에 담긴 의도는 공간에 관해 권력화되고 제도화된 담론을 혁명적으로 재편하는 ‘은밀하면서도 지하화한(underground)’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s)이다. 또한 지배적인 혹은 강제된 사회 공간화(social spatialisation)의 규범 밖에서 공간적 존재와 실천을 확보해가는 새로운 양식의 공간적 실행(spatial praxis), 이를테면 무허가 거주자, 탈법적인 이민자, 제3세계 불량주거지 주민들이 실제로 벌이는 실천도 대안적 공간 이해의 목적이 된다. 많은 나라에서 목격되는 불평등한 자산소유제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영세 농민들에 대한 부재지주의 특권을 관찰시키는 것이 되어 이러한 공간 상황을 극복하려는 영세농민의 노력은 대안적 공간실천의 한 전형이 된다. 르페브르는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공간은 관련된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생명력을 직접적으로 갖게 되고, 그래서 ‘거주자’와 ‘사용자’의 공간이 된다... 이것은 상상을 통해 변하고 활용되며 지배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물리적 공간에 포개지면서 공간상의 대상을 상징적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재현적 공간(representational space)은 비언어적 상징이나 기호의 다소 느슨한 체계를 강렬히 지향하게 된다(1991c: 39).

니콜슨-스미스가 번역한 『공간의 생산』 영역본(1991c)은 원어를 그대로 옮긴 ‘재현의 공간(space of representation)’ 대신 ‘재현적 공간(represen-

tational space)’이란 다소 어색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텍스트의 이같은 번역(모든 번역은 해석이 되지만)은 은유와 환유의 기호학이나 기호체계를 통한 재현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르페브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었다.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은 그간 거의 잊혀진 언어학, 기호학 이론들의 잔재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점은 그가 생동적인 공간(lived space)의 문제를 이론적인 상상력의 문제에 결부시키기보다 구체적인 공간적 실천의 문제에 더 의미있게 결부시키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완전한 사람(total man)’에 관한 니체적 이상을 품고 있던 르페브르는 사람을 생동스럽게 하고 ‘삶과 공간화의 일체화’에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성(spatiality), 특히 공간성이 가지고 있는 ‘완전히 생동적이고(fully lived)’ 전(前)의식적이며 진정한(authentic) 요소들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을 구술로 저술하면서 인위적인 편집을 하지 않아 술한 불일치를 남겼는데, 이는 그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여러 난해한 문제들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이는 기호와 진정한 현실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의 파라독스와 같은 것이 되었다. 일종의 기표(記標)와 기의(記意) 간의 괴리와 같은 이러한 간극은 (니체적인) ‘완전한 인간’을 보편적 세계로부터 소외시키거나 애매하고 단절적인 통합과 분열의 상태로 남기는 까닭이 된다고 보았다. 1968년 5월 소르본 대학 점거 동안 일어나길 기대했던 사회변동을 위한 리비도적 동원력으로 ‘완전한 사람’이 재현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주체의 실현을 가로막는 이러한 탈구와 분열의 상황 때문이었다고 르페브르는 인식했다. 이러한 파라독스가 곧 ‘공간의 생산’을 완성한 후 르페브르로 하여금 니체의 연구를 재평가하도록 되돌려 놓았을지도 모른다(1991c; 1975a).

르페브르의 삼분법적 구분(tripartite division)은 다분히 기독교적인 것이며, 실제 기독교의 신비주의에서 비롯되었다. 르페브르가 맑스 이론과 프랑크 공산당의 실천을 병렬적인 관계로(변증법적 관계로) 견지했던 것은 그의 삼분법적 입장에서 연유했다(Shields, 1999 참조). 그러나 실제 르페브르가 이론적이고 전문적인 것으로부터 실천적이고 대중적인 것을 분리

하고자 했던 것은 민중전선(Front Popular)이나 공산주의 민초(grassroots)운동에 대한 관여, 그리고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도시계획운동에 대한 경험 때문이었다. 르페브르가 도시계획운동에 참여한 것은 이른바 도시계획가(전문가)들이 작성한 불량지역철거사업이나 투기적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도시대중(주체)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현장인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을 저항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그가 예술(art)에 특권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그 스스로 초현실주의나 상황주의자들과 같은 예술적·정치적 아방가르드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데서 연유한 것이었다. 어쨌든 ‘삼분법적 변증법’으로 돌아가면, 그가 제시했던 공간의 3요소는 그가 제창하는 ‘삼각 변증법(triple dialectic)’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공간의 이러한 3요소들이 동태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면, 이는 로브 쉴즈가 ‘한 시대의 역사적 공간화’로 언급했던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Shields, 1999; 1990).

삼각 변증법은 토대와 상부구조로 이원화되는 그 어떠한 대립적 경향도, 이를테면 경제와 문화, 생산과 소비, 사고와 실천 간 이원적 관계를 제3의 것으로 설정하여 변증법적 병렬을 넘는 다차원으로 통합하고 재창조하는 것을 사고할 수 있게 해준다. 르페브르의 다차원성 테제는 공간을 생산·소비·교환의 3부 체계로 왜소화시켜 인식하는 기존 접근, 특히 카스텔류의 도시공간 인식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간에 관한 정치경제적 분석에 자주 등장하는 이 세 가지 요소(생산, 소비, 교환)에 덧붙여 르페브르는 제4 요소를 주창하고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부와 잉여의 생산 및 배분이 일어나는 사회적 관계를 결정하는 공간을 지칭한다.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공간화’의 영역을 르페브르는 제4의 영역으로 제창하고 있는 것이다. 공간적인 것은 사회경제적 위계를(이는 주로 물리적인 공간분업을 통해 구현되는데) 만들어내는 문화적 레짐을 ‘읽어매는’ 개념이면서 특권·계급·실천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활동의 일관성·양립성·지속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르페브르의 삼각 변증법은 개별 요소들간의 대립과 모순이 합으로 전화하는 시간적 진화의 측면보다 파열하는 긴장 속에 병존하는 개별 요소들이 결합되는 영역적 설정, 즉 공간적 설정을 통

해 더욱 선명한 차별성을 드러낸다. 역사발전의 시각으로 볼 때 대립적 개별요소들이 결합되는 영역의 설정은 다름 아닌 역사적인 추동력이 안정화된 패턴으로 재형상화되고 재해석되며 재약호화된 ‘제3의 것’의 출현을 뜻하는 것이다.

역사적 공간화에 관한 이러한 사고는 맑스의 『요강(Grundrisse)』을 공간적인 것으로 재약호화 혹은 재해석하는 바탕이 되었다(Jameson, 1991). 르페브르적인 ‘공간적 생산양식의 역사’는 맑스가 제창한 ‘역사적 생산양식’이란 현상을 도시적·환경적·행태적인 맥락에서 규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공산주의 혁명은 생산수단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계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이의 새로운 공간화를 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즉 사적 자산의 지위, 도시 토지의 구분, 공간소유 관계 등으로 구성된 ‘개념공간(conceived space)’ 혹은 제도화된 기성공간의 정형성을 재편하여 노동자들의 존재가 공간적으로 보장되는 방식으로 재배열될 때 비로소 공산주의의 혁명은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아방가르드의 ‘생동공간(lived space)’을 끌어안는 것은 그래서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재활력화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이며, 또한 일상실천의 ‘지각공간(perceived space)’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향짓는 것이 된다. 이 이론은 맑스 사상으로부터 현대환경주의를 잇는 초기 다리가 되었으며, 그래서 르페브르는 독일 녹색당의 강령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도시나 여타 유형의 공간에 관한 연구는 르페브르의 연구가 영어권에서 중요하게 남게 된 까닭이 되었다. 다시 말해 그의 연구가 영어권에서 중요하게 남게 된 까닭은 변증법의 아버지로서 탁월한 역할 때문만도 아니며, 더욱이 1920년 다다주의자들로부터 1960년대 반문화주의 학생들이나 1980년대 영국의 핑크나 무정부주의자들에게 ‘일상생활의 사적 혁명’의 이념을 전수해준 (잇혀진) 역사 때문만도 아니다(Home, 1988; Plant, 1992). 영어권 학자들 중에서 르페브르를 발견한 사람으로는 지리학자 에드 소자(Ed Soja, 1989; 1996) 및 닐 스미스(Neil Smith, 1984), 사회학자 마크 고트디너(Mark Gottdiener, 1985), 문화학자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son)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과의 조우는 르페브르가 1983년 한때 캘리포니아에서 시간을 보냈을 때에 이루어졌다. 이 여행 동안 르페브르는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사회 비평가들과 오래 지속될 관계를 맺었다.

3. 르페브르의 주요 기여와 논쟁의 재평가

왜 그의 저작이 중요한가? 르페브르는 공간의 성격에 대한 기존의 철학적 논쟁을 넘어섰으며, 공간 내(in)에 사람이나 사물이 분포한 것쯤으로 여기는 인문지리학, 도시계획, 건축분야의 논의도 뛰어넘어, 상이한 역사 단계에 존재하는 공간성의 상이한 시스템 혹은 이 글에서 언급한 ‘역사적 공간화(historical spatialisation)’에 관한 일련의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나갔다. 공간화는 사물의 단순한 물리적 배열이 아니라 사회적 작용과 흐름의 공간적 패턴이면서, 동시에 공간과 세계에 대한 역사적 개념(과거 지구는 평평하며 그 끝으로 나가게 되면 떨어질 것으로 두려워했던 것과 같은 공간개념)이다. 이런 요소들이 합쳐질 때, 이는 우리의 일상 실천 모든 분야에서 드러나는 사회공간적 상상력과 전망으로 형성된다.

공간의 이같은 시스템은 모든 규모 혹은 수준에서 작동한다. 가장 사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공간적인 조건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를 대상화된 육체 내에 갇힌 에고로서 상상하게 된다. 거미가 거미줄을 만들어 뻗어 나가듯이 사람들은 정신적이고 물리적으로 스스로를 공간 속으로 확대시켜 간다. 그러한 확장이 우리의 일부가 되는 만큼, 우리는 이러한 확장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사물, 작업 팀, 경관, 건축의 배열은 이러한 공간화의 구체적인 양태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역에 관한 개념, 도시에 관한 언론매체들의 이미지, 좋은 이웃에 대한 관념 등은 모두 공간화의 상이한 측면에 해당하며, 이는 마치 각 사회가 지구상에 그 흔적을 필연적으로 남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공간의 생산을 이렇게 해체해보는 것의 용도는 과연 무엇일까? 르페브르는 역사적인 공간의 유형을 사용하면서 왜 자본축적이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는지, 심지어 상품관계가 확산되어 있고 화폐기반이 되어 있었고 이성과 과학이 상당 정도 확산되어 있던, 그러면서 도시가 삶의 중추였던 고대경제에서는 왜 자본(주의적) 축적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제시된 주된 설명에 따르면 노예제가 결국 임금관계의 발달을 저지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르페브르는 이러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다. 공간과 관련된 역사발전의 의미는 자본축적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공간의 세속화란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공간 자체가 필지와 사적 소유자산으로 상품화되고, 지적가들에 의해 계량화되며, 그래서 과거 장소에 터한 신이나 장소의 혼이 사라지는 변화를 겪는 등의 조건은 역사발전의 필연성을 이룬다. 그는 특유의 변증법적 형식으로, ‘사회적 관계의 존재양식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질문한다.

공간에 관한 연구는 생산의 사회적 관계가 공간적인 실존인 만큼 사회적 실존임을 설명하는 답을 제공해준다. 생산의 사회적 관계는 공간 속으로 투영되면서 공간 속에 각인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공간 자체를 생산하게 된다. 공간화의 의미가 빠질 때, 생산의 사회적 관계는 순수한 추상화의 영역, 즉 재현이나 이념의 영역이나, 언어적 표현 혹은 공허한 말의 영역에만 있게 된다(1991c: 129).

공간은 문화의 생산물임과 동시에 하나의 매개도구이다. 공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의 자본주의적 세계가 어떻게 예기치 못한 지리정치적 사건으로 발전해가는지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이해는 늘 변동하는 ‘거리와 차이의 공간(space of distance and difference)’이라 할 수 있는 육체·세계·지구와 우리가 맺어지는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불러오게 한다.

이런 분석에서 르페브르는 생산의 개념을 확대하여 ‘사회적 생산’이란 개념을 제시한다. 사실 이 개념은 그가 버거(Berger), 루크만(Luckman), 가

핀켈(Garfinkel)과 같은 프랑스어권 밖 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사회구성주의론(social constructivist theory)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시된 것이었다. 1970년대 중반 폴란차스(Poulanzas)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르페브르는 국가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그의 분석을 더욱 정교화해 나아갔다. 여기에는 자본주의의 변동하는 역사지리학에 관한 관심, 사회경제적 활동의 지구화에 관한 관심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관심은 리듬 및 공간-시간에 대한 것으로 회귀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Lefebvre and Regulier-Lefebvre, 1985). 『공간의 생산』이 출판된 이후에도 르페브르의 저술활동은 15년 이상이나 계속되었는데, 여기에는 그의 사후작이 된 『리듬분석(Rhythmanalyse)』(Lefebvre and Regulier-Lefebvre, 1985; 1992)도 포함된다. 아울러 그는 『맑스, 헤겔, 니체』(1975a)란 저서를 통해 이 세 이론가의 화합을 시도하면서 맑스주의를 확장하는 ‘메타철학’이란 새로운 거대이론을 제시하였다(1965a). 그러나 르페브르의 공간적 변증법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정교한 공헌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변증법의 이론적 공간화는 르페브르 자신만이 추구한 것이 아니다. 르페브르는 고전적 헤겔주의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 이 점은 그를 해석하는 이차문헌, 이를테면 소자(Soja)의 연구에서조차 충분히 밝혀지지 못하는 부분이다(물론 소자의 연구는 다른 이론가의 해석에 의존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르페브르를 통해 그 자신이 이룩한 것을 벗어나는 유산까지 간파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의 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변증법적 스타일 때문이며, 또한 르페브르 자신이 대답한 것 이상의 적절한 질문을 찾게끔 허용하는 변증법적 방식의 탁월성 때문이다.

헤겔의 관점에서 (부정에 반대되는) ‘정(affirmation)’은 그 자체로서 무차별적인 것이며 차이가 부재함으로써 결코 알 수 없는 하나의 동질적인 실체에 해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는 순수한 공간적 개념이며, 개별적인 점이나 요소들이 두드러지지 않는 무차별의 영역과 모든 측면에서 유사한 것이다. 변증법적 부정은 ‘공간의 부정’이라 할 수 있는 ‘시간’을 시점

(punctum)의 형태인 점(point)이나 찰나(instance)는 시간적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함의 요소로 끌어들이는 것이 된다. 이 부정(시간적 요소로 구성된 것)의 부정(Aufhebung)은 공간적 범역으로 스며들게 되거나, 혹은 순수한 차이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점 속으로 스며들게 된다. 헤겔에게 있어서, 이는 점의 공간화, 즉 포인트가 선, 궤적, 흐름, 움직임, 전이(passage)로 묶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헤겔적인 틀에서 볼 때, 변증법적 전개에서 도출되는 제3의 것은 역사적 ‘진보(progress)’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헤겔을 너무 단순화시킨 것이 될 지 모르지만, 변증법적 제3의 것(이를테면, ‘생동적임[the lived], 계기[Moments], 조크[Jokes]와 같은 것)에 대한 르페브르의 제안은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제3의 것은 지평의 세계와 그 밖의 세계로 뺏아가거나, 아예 이를 넘어서는 세계 혹은 타자의 세계로까지 뺏아가는 것이 된다. 제3의 요소는 면과 점 사이, 그리고 정과 부정 사이에 존재하는 본원적 이분법과는 구성적으로(constitutively) 명확히 구분된다. 사실 헤겔에게 있어서 변증법적 이동은 ① 정, ② 부정, ③ 부정의 부정(합)으로 이동에서 ‘정-부정-타자(otherness)-합’으로의 이동이란 새롭지만 잘 밝혀지지 않는 공식을 내포하고 있음이 주목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자(Soja)는 이런 변증법적 통합을 이분법적인 기존 차이를 추가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보다, 총체화(totalisation)를 오히려 해체하고 탈질서화하며 임시적으로 재구성하는, 그래서 유사하면서도 차별화가 분명한 개방적인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다. 소자가 르페브르의 ‘차별주의적 입장(differentialist position)’을 ‘제3의 것으로 만들어가기(Thirthing)’로 도출하는 것은(1971a; 1980; 1981b; Lefebvre with Latour and Comes, 1991b) (이분법에 기초한) 변증법을 해체하는 것이 된다. 이 해체는 (이분법에 기초한) 변증법의 논리전개를 영역적으로 확장시키는 ‘개입적 교란’, 즉 제3의 것의 설정을 통해 닫혀진 이분법적 논리전개 영역을 확장하는 행위를 통해 시도된다. 이러한 교란은 추가적인 타자를 받아들이고 공간적 지식을 끊임없이 확장해가는 것을 누적시켜

가는 ‘삼분법적 변증법(trialectics)’이라 일컬어지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다 (Soja, 1996: 61).

변증법은 이렇게 해서 시간을 통해 등장하며 공간상에서,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지금도 작동하면서, 스스로를 구현해간다. 공간의 모순은, 역사적인 시간으로부터 나타나는 모순을 폐지함이 없이, 역사를 뒤로 남기면서 이 오래된 모순들을, 세계적인 동시성을 가지고,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승화시켜 간다(Lefebvre, 1991c: 129).

르페브르는 ‘양자와 그리고(both-and)’란 관점의 변증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자와 그리고’는 글자 그대로 ‘양자’(정과 부정)와 ‘그리고’(제3의 것 혹은 타자)를 합성한 것이다. 르페브르는 변증법적 구조 내에서 ‘환원 불가능한 긴장’, 즉 *Überwinden*에 관한 니체의 개념을 통합시켰는데, 이 개념은 르페브르가 1930년대부터 견지했던 것이다. 이 개념은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상호지지적이면서 스스로의 지위 유지를 위해 서로 기생해야 하는 세 가지 텀(terms)들을 대치적으로 통합(counter-posed assemblage)하는 방식으로 이분법적 변증법을 재설정하게 해준다. 환원 불가능한 긴장을 내면화하는 변증법적 전개 속에서 완전한 통합은 불가능하다. 단지 개관(synopsis)만이 포괄적으로 동시화되는 합(synthesis)의 의미를 제공해줄 뿐이다. 하지만 개관은 변증법적 분석으로부터 도출되지만 변증법의 고유한 속성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르페브르는 대체(alterity)를 위한 입장을 열어줌으로써, 타자(the otherness)가 변증법적 틀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타자적인 것(the other)이 자아·테제·정(affirmation)의 직접적인 부정으로 간주되는 논리로 빠져들지 않게 된다.

4. 비판

르페브르는 이러한 개념적 작업들을 육체나 민족주의와 같은 정체성의 현상에는 적용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육체(the body)의 경우, 그는 기본적으로 가부장적 전통 내에 머물면서 육체와 공간을 남성과 여성, 양성(兩性)으로 구획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르페브르의 이러한 입장은 ‘단순한 부정’을 취하는 입장에 의거했던 것이다(즉, A 혹은 비[非]A: 즉 남성 혹은 비[非]남성). 따라서 프랑스의 다른 주요 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르페브르는 양성적 이원구조(heterosexual dualism) 밖에 있는 동성애자의 ‘제3의 대안적 정체성’을 논의했던 영미이론들에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는다(Blum and Nast, 1996). 20세기 후반 탈식민주의 논자들은 르페브르를 참조하지 않고 인종적·종족적 정체성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예외로는 Gregory, 1994 참조). 아마 호미 바브하(Homi Bhabha)의 연구를 예외로 한다면, ‘대체의 개념(idea of alterity)’은 부정과 모순에 관한 이론들(예, 변증법)과 비교 내지 대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단순한 토대-상부구조의 이분법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르페브르의 최우선 관심사였다. 하지만 1968년 5월 학생점거사건의 실패에 이어, 루이 알튀세(Louis Althusser)의 프랑스 공산당이 지지하던 ‘과학적 맑스주의’가 풍미하면서 르페브르는 빛을 잃게 되었다. 과학적 맑스주의에서 토대와 상부구조의 이분법은 자본주의적 국가를 뒷받침하는 억압적인 세력과 기구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Zimmerman, 1975). 아이러니컬하게도, 르페브르가 영어권 이론가들에게 알려진 것은 그의 연구에 대한 알튀세주의자들의 비판을 통해서이다. 이를테면 마누엘 카스텔을 전형적으로 들 수 있는 데, 그의 ‘도시문제(the Urban Question, 1977)’는 도시에 관한 르페브르의 연구가 모호하고 반구조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Martins, 1983: 166; Gottdiener, 1985; Lefebver, 1971b 참조).

반면에 르페브르의 ‘인간주의적 맑스주의’는 소외에 관한 인간주의적

이해를 맑스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강조하면서, 사적 유물론과 변증법의 도구를 사용해 경제영역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덕분에, 르페브르는 맑스주의 방법론자이자 논리가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 되었다(Lefebvre, 1947 참조). 르페브르는 맑스주의가 사회적 삶의 전체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20세기 맑스주의의 과제는 경제적 영역을 넘어 변증법적 유물론의 적용을 확장하는 것이며, 그래서 맑스주의 이론과 정치를 성찰적으로 다루어 가는 데 있다 하였다.

민족주의·도시주의·지구경제의 통합적 관계에 관한 그의 관심을 감안할 때, 그리고 모로코, 알제리의 독립에 관한 프랑스 내의 논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그의 이력을 고려할 때, 르페브르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나 프랑스의 소수민족의 계도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의 출현을 내다보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사실 인종차별, ‘내부자와 외부자’ 그리고 그들간의 관계가 가지는 문제에 대해 르페브르가 언급한 것은 별로 없다. 그는 어느 맑스주의와 마찬가지로 국가란 것을 자본가 계급을 위해 장악된 특정계층의 지배도구로 보려고 했다.

르페브르와 루카치, 아도르노, 마르쿠제의 연구 간에는 중요한 유사성이 있지만, 20세기 신맑스주의 학파 내에서 이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비록 생산과 변증법의 개념을 경제적 영역 너머로 확장시켰지만, 르페브르는 국가·사회의 관계에 대한 근대주의적(modernist) 문제 인식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르페브르는 후기 연구에서 인종, 민족, 성적(性的)인 타자, 식민지 지배의 관계 등과 관련된 논의를 전개치 못했으며,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도 시도하지 못하였다. 부분적으로 이는 시기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의 왕성한 저술활동은 1980대 초에 들어서면서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의 기여는 일련의 개방적인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텍스트들은 새로운 해안과 해결치 못한 그러면서 탐구되어야 할 숭한 질문들로 가득차 있으며, 그리고 실천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의 직감과 의지에 관한 믿음으로 채색되어 있다. 르페브르는 유

럽 아방가르드의 이상과 누적된 경험을 세대간에 ‘전도하는 전선’과 같았다(Hess, 1988; Marcus, 1989). 그의 아이디어는 한 세대에게만이 아니라 한 세기의 좌파에게 전력을 공급해 주었으며, 그의 흔적은 프랑스 밖에서도 광범위하게 남겨졌다.

참고문헌

1. 르페브르의 주요 저서목록

- 1925 “Positions d’attaque et de défense du nouveau mysticisme,” *Philosophies* 5-6(March). pp. 471-506(Philosophy. Pt. 2 of the ‘Philosophy of Consciousness’ project on being, consciousness and identity originally proposed as a thesis topic to Leon Brunschvicg).
- 1934 with Norbert Guterman, *Morceaux choisis de Karl Marx*, Paris: NRF (numerous reprintings).
- 1936 with Norbert Guterman, *La Conscience mystifiée*, Paris: Gallimard (new ed. Paris: Le Sycomore, 1979).
- 1937 *Le nationalisme contre les nations*(‘Preface’ by Paul Nizan), Paris: Editions sociales internationales(Reprinted, Paris: Méridiens-Klincksliak 1988, Collection ‘Analyse institutionnelle’, ‘Présentation’ M. Trebitsch, ‘Postface’ Henri Lefebvre).
- 1938 with Norbert Guterman, *Morceaux choisis de Hegel*, Paris: Gallimard (3 reprintings 1938-1939, reprinted Collection ‘Idées’, 2 Vols. 1969).
- 1939a *Nietzsche*, Paris: Editions sociales internationales.
- 1946 *L’Existentialisme*, Paris: Editions du Sagittaire.
- 1947 *Logique formelle, logique dialectique* Vol. 1 of *A la lumière du matérialisme dialectique* Written in 1940-41(2nd volume censored see 1940), Paris: Editions sociales.
- 1950b ‘Knowledge and Social Criticism’, *Philosophic Thought in France and the USA* Albany 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 281-300(2nd ed. 1968).

- 1958a *Problèmes actuels du marxism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4th edition, 1970, Collection 'Initiation philosophique'.
- 1958b (with Lucien Goldmann, Claude Roy, Tristan Tzara) 'Le romantisme révolutionnaire', *Le Romantisme révolutionnaire*, Paris: La Nef.
- 1961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II, Fondements d'une sociologie de la quotidienneté*, Paris: L'Arche
- 1963 *La vallée de Campan—Etude de sociologie rural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1965a *Métaphilosophie*, 'Envoi' by Jean Wahl, Paris: Editions de Minuit, Collection 'Arguments'.
- 1965b *La Proclamation de la Commune*, Paris: Gallimard, Collection 'Trente Journées qui ont fait la France'.
- 1968a *Le Droit à la ville*, Paris: Anthropos(2nd ed. Paris: Ed. du Seuil, Collection 'Points'.
- 1968b *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 Paris: Gallimard, Collection 'Idées'.
- 1968d *Sociology of Marx*, N. Guterman trans. of 1966c, New York: Pantheon.
- 1968c *Dialectical Materialism*, J. Sturrock trans., London: Cape.
- 1969 *The Explosion: From Nanterre to the Summit*, Paris: Monthly Review Press. Originally published 1968.
- 1970 *La révolution urbaine*, Paris: Gallimard, Collection 'Idées'.
- 1971a *Le manifeste différentialiste*, Paris: Gallimard, Collection 'Idées'.
- 1971b *Au-delà du structuralisme*, Paris: Anthropos.
- 1974 with Leszek Kolakowski 'Evolution or Revolution', F. Elders ed. *Reflexive Water: The Basic Concerns of Mankind*, London: Souvenir, pp. 199-267.
- 1975a *Hegel, Marx, Nietzsche, ou le royaume des ombres*, Paris: Tournai, Casterman. Collection 'Synthèses contemporaines'.
- 1975b *Le temps des méprises: Entretiens avec Claude Glayman*, Paris: Stock.
- 1978a with Catherine Régulier *La révolution n'est plus ce qu'elle était*, Paris: Editions Libres-Hallier(German trans. Munich, 1979).
- 1978b *Les contradictions de l'Etat moderne, La dialectique de l'Etat*, Vol. 4 of *4 De l'Etat*, Paris: UGE, Collection '10/18'.
- 1980 *La présence et l'absence*, Paris: Casterman.

- 1981a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III. De la modernité au modernisme*(Pour une métaphilosophie du quotidien), Paris: L'Arche.
- 1981b *De la modernité au modernisme: pour une métaphilosophie du quotidien*, Paris: L'Arche Collection 'Le sens de la marché'.
- 1985 with Catherine Régulier-Lefebvre, "Le projet rythmanalytique," *Communications* 41, pp. 191-199.
- 1988 "Toward a Leftist Cultural Politics: Remarks Occasioned by the Centenary of Marx's Death," D. Reifman trans., C. Grossberg and L. Nelson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New York: Macmillan, pp. 75-88.
- 1991a *The Critique of Everyday Life*, Volume 1, John Moore trans., London: Verso, Originally published 1947.
- 1991b with Patricia Latour and Francis Combes, *Conversation avec Henri Lefebvre*, P. Latour and F. Combes eds., Paris: Messidor, Collection 'Libres propos'.
- 1991c *The Production of Space*, N. Donaldson-Smith trans., Oxford: Basil Blackwell, Originally published 1974.
- 1992 with Catherine Regulier-Lefebvre *Eléments de rythmanalyse: Introduction à la connaissance des rythmes*, Preface by René Lorau, Paris: Ed. Syllepse, Collection 'Explorations et découvertes'.
- 1995 *Introduction to Modernity: Twelve Preludes September 1959-May 1961*, J. Moore, trans., London: Verso, Originally published 1962.
- 1996 *Writings on Cities*, E. Kofman and E. Lebas trans. and eds., Oxford: Basil Blackwell.

2. 2차문헌

- Benjamin, W. 1993, *Paris, capitale du XIXe siècle, le livre des passages*, Paris: Editions du CERF.
- Blum, V. and Nast, H. 1996, "Where's the difference? The heterosexualization of alterity in Henri Lefebvre and Jacques Lacan,"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4:4, pp. 559-80.
- Castells, M. 1977, *La question urbaine*, Maspero, 1972, trans. A. Sheridan, *The Urban Question: a Marxist approach*, London: Edward Arnold.

- Gottdiener, M. 1985, *Social Production of Urban Spa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 Gregory, D. 1994, *Geographical Imaginations*, Blackwell, Oxford.
- Harvey, David. 1991, 'Afterword', H. Lefebvre *The Production of Space*, D. Nicholson-Smith trans. Oxford: Basil Blackwell, pp. 425-432.
- Hess, R. 1988, *Henri Lefebvre et l'aventure du siècle*, Editions A. M. Métailié, Paris, 1988.
- _____. 1994, "La théorie des moments, ce qu'elle pourrait apporter a un dépassement de l'interactionnisme," *Traces de futurs. Henri Lefebvre le possible et le quotidien*, Paris: La Société Française.
- Home, Stuart. 1988, *The Assault on culture: Utopian currents from Lettrisme to Class War*, London: Aporia Press and Unpopular Books.
- Jameson, F. 1991,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London: Verso.
- Kleinspehn, Thomas. 1975, *Der Verdrängte Alltag: Henri, Lefebvres marxistische Kritik des Alltagslebens*, Giessen: Focus Verlag.
- Kofman, E. and Lebas, E. 1996, "Lost in Transposition—Time, Space and the City," Introduction, *H. Lefebvre Writings on Cities*, E. Kofman and E. Lebas trans., Oxford: Basil Blackwell, pp. 1-60.
- Marcus, G. 1989, *Lipstick Traces*, Cambridge Mass.: Harvard.
- Martins, M. 1983, "The theory of social space in the work of Henri Lefebvre," R. Forrest, J. Henderson and P. Williams(eds), *Urban Political Economy and Social Theory: critical essays in urban studies*, Gower, pp. 160-85.
- Merrifield, A. 1993, "Space and place: a Lefebvrian reconciliation,"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8:4. pp. 516-31.
- Meyer, Kurt. 1973, *Henri Lefebvre: ein romantischer Revolutionnär*, Wien, Europa Verlag, p. 175.
- Plant, S. 1992, *Most Radical Gesture: Situationist International in a Postmodern, Age*, London: Routledge.
- Poster, Mark. 1975, *Existential Marxism in Postwar France: From Sartre to Althusser*,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s, K. 1988, *The Emergence of Social Space: Rimbaud and the Paris Commune*, New York: Macmillan.
- _____. 1996[1995], *Fast Cars, Clean Bodies: Decolonization and the reordering*

of French Cul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October.

- Sartre, J.-P. 1958, *Being and Nothingness*, H. E. Barnes, trans., New York: Methuen/Philosophical Library(Originally published as *L'Être et le Néant*, Gallimard, 1943).
- Shields, Rob. 1990, *Places on the Margin: Alternate Geographies of Modernity*, London: Routledge.
- _____. 1999, *Lefebvre: Love and Struggle: Spatial Dialectics*, London: Routledge.
- Short, Robert S. 1966, "The Politics of Surrealism 1920-1936,"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1:2(April), pp. 3-26.
- _____. 1979, "Paris Dada and Surrealism," *Journal of European Studies*, 9:1-2(March/June).
- Smith, N. 1984, *Uneven Development: Nature, Capital and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lackwell.
- Soja, E. 1989, *Postmodern Geographies, the reassertion of space in critical social theory*, London: Verso.
- _____. 1996, *Third Space*, Oxford: Blackwell.
- Trebitsch, Michel. 1987, "Le groupe Philosophie, de Max Jacob aux surréalistes," *Les Cahiers de l'Institut de l'Histoire du temps présent*, 6(Nov), pp. 29-38.
- _____. 1988, "Présentation," Henri Lefebvre *Le Nationalisme contre les Nations*, Paris: Meridiens Klincksieck. pp. 7-17.
- _____. 1991, "Preface," Henri Lefebvre *Critique of Everyday Life*, John Moore trans., London: Verso, pp. ix-xxviii.
- Zimmerman, Marc. 1975, "Polarities and Contradictions: Theoretical Bases of the Marxist-Structuralist Encounter," *New German Critique*, 3:1(Winter). pp. 69-90.